

풍성한 '강진 청자축제'...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3000만원 규모 지역화폐 행사 돌림판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강진군이 코로나19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강진읍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팡 없는 돌림판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청자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 개최를 기념해 강진읍 상가 사은행사가 강진오감통 음악장작소 광장에서 펼쳐진다.

축제기간인 오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청자축제 현장에서 강진군 캐릭터인 '강이', '진이'와 사진을 찍거나 청자축제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 강진청자축제'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 팡 없는 돌림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손목띠를 받는다.

손목띠를 강진읍 오감통 행사장에서 보여주면 최소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에서 1만원, 골드바 응모권까지 노력할 수 있는 돌림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3000만원으로 전량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행사로는 오감통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절약 실천을 위한 자전거 승사탕 체험, 청자 낚시, 도자기 신데렐라 찾기, 액자 제작체험, 버스킹이 열린다.

축제장 내 강진읍 상권 특산물 홍보, 풍선배부, 축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고객 사은행사 등의 강진읍 상가 고객 유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이자 처음으로 도전하는 겨울축제인 만큼 축제장과 강진읍 전체를 아우르는 사은행사를 통해 강진청자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고 강진읍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함평군, 복지안전망 강화

함평군이 사회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10개 단위(군 1개기동대·읍면 9개기동대) 75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155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비 또한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 증액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수리비 150만원 이내)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및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마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가호호방문단) 등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함평=신재현 기자**

무선 LED 초인종 설치

강진군 읍면지사협

지난 2일 강진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승언·김성호)가 시청각 장애인과 노안, 난청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과 LED 조명이 동시에 작동하는 무선 초인종 19대를 설치했다.

지사협 위원들은 복지이장의 추천을 받아 수혜대상 19가구를 선정하고 읍면면 복지기동대원들과 대상 가구에 방문해 초인종 설치 후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했다.

송승언 읍면면장은 "초인종이라는 연결고리로 어르신들이 이웃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지역 내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행복한 읍면면 복지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시청각 장애인과 노안, 난청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과 LED 조명이 동시에 작동하는 무선 초인종 19대를 설치했다. **강진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공**

완도군, 소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씩, 총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30일까지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완도=최경철 기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방안 논의 영암군,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추진을 위한 '영암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차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에 있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유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암산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영암·삼호·서영암농협 3곳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관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86개소, 59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기업 모집 무안군, 17일까지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7일까지 2023년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정주여건 확보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 후 1~4년차 청년이 근속시 1인당 최대 4년간 2000만원(기업 500만원·청년 15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33명(1년차 5명·2년차 15명·3년차 5명·4년차 8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며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참여자가 선발되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자원순환 거점' 에코플랫폼 올해 말 개관

교육장 등 다목적 복합시설

해남군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이 될 에코플랫폼을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에코플랫폼은 자원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정부 그린뉴딜 과제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남읍 옛 관광버스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114.4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AR·VR 자원순환 입체체험교육장, 에코라운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



에코플랫폼 조감도. **해남군 제공**

출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2월부터 가설울타리와 가설건축물 축조와 함께 기존 건물인 옛 공영주차장을 철거하면서 본격화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BF 예비인증, 전남도 계약심사, 건축 인허가 등 행

정절차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민이 자원순환에 참여해 적립된 포인트는 에코플랫폼 내 리빙샵, 물품공유센터, 입체체험장, 에코 라운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민 전용앱인 해남소통넷과 서비스를 연계해 재활용품 나눔공간, 에코 리빙랩 활동, 재활용 온라인교육 등 주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해남군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깨끗희망이'를 통해 지난해 재활용품 109톤을 수거하는 등 자원순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자원순환의 표준 모델이 될 에코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추진에도 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차상위 계층 무료

해남군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유·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재활성화되어 반복적으로 일어나

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 시에는 발진, 수포, 극심한 신경통 등을 유발하고 고령일수록 치료 후에도 신경통이 남을 수 있어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기관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백신 구입가격 8만2000원(백신 구입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유료 접종이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발병시 고통이 극심하고, 어르신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지원 사업을 활용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